

정읍 샘고을시장 설 명절 '페이백' 할인

41개 점포 수산물 구매
1만7000원마다 5000원씩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
해양수산부 전통시장 활력 행사



설 명절을 맞아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수산물에 한해 구매금액의 비율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정읍 샘고을시장 내 수산물 점포 전경.

'100년 전통, 대한민국 4대 전통시장' 중 하나인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특별한 할인 행사가 열릴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읍시는 샘고을시장은 2년 연속 해양수산부의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의 대상 시장으로 선정돼 수산물에 한해 구매금액의 비율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해양수산부가 기획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30일까지 샘고을시장 내 41개 수산물 취급점포에서는 1만7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5만1000원 이상 구매 시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등 1만7000원 단위 구매마다 5000원씩의 환급금을 은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신청은 당일 물품구매 영수증(신용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지참해 샘고을시장 내 고객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일에 사용한 소액 영수증을 합산할 수도 있다. 단 확보된 전체 예산의 조기 소진 시에는 행사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샘고을시장상인회는 해양수산부와 전국상인연합회에 이번 행사 대상 전통시장 선정을 위해 적극

적으로 선정을 건의했고 이를 통해 5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 유지를 위해 노력한 샘고을시장상인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가축분뇨 악취저감 솔루션' 추진

행안부 주관 사업...10개 농장 대상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솔루션은 '거품발생기'를 활용해 미생물제를 가축분뇨에 덮는 방법으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군산대학교 환경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로 솔루션 추진단을 꾸렸다. 이에 고창군은 올해 기존 운영되던 '축산악취개

선 지역협의회'를 '상생협의회'로 확대해 민원이 잦은 농가와 농장별 악취저감 시설현황 등 기준을 마련, 대상농장(10개소)을 선정하고 매월 현장방문으로 사업성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으로 70개소에 24억원을 투입해 축산 악취를 저감할 계획이다. 이등태 고창군 축산과장은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청정 고창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정호 기자 khj@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7525명 1인당 연 24만원 지급

익산시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활동비 지원으로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752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활동비 24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활동비는 지급 대상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후 2월부터 지급된다. 1월분은 소급해 지급된다. 박남섭 익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익산시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시, 만경강 낚시꾼 불법점유물 철거

낚시 좌대·텐트 등 불법설치물

2월10일까지 요구 없으면 처분

군산시가 만경강 국가하천인 대야면 광교리 읍 서감서터 인근의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했다. 이곳 쉼터는 낚시꾼들이 찾아와 장기간 좌대와 텐트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및 소각 등 몸살을 앓아 온 지역이다. <사진> 지속해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쓰레기 투기에 따른 하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제철거 예고와 자진철거 유도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난 20일 강제철거

와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하천환경 정화운동을 펼쳤다. 총 61건의 무단시설물 가운데 30건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31건에 대해 강제철거를 했다. 더불어 총 7t의 임목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강익식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하천 내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만경강 일원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환경 감시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환경보호 노력"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 강제철거 점유물은 오는 2월 10일까지 보관 후 반환요구가 없으면 군산시에서 임의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순창군, 1인당 100만원 '취·창업 교육비 지원' 올해도 계속

출석률 80%·자격증 취득 지원

중·고생은 최대 50만원까지

순창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교육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 교육을 지원해 지역 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면서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 80% 이상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 20%)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지원 유사 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타일·도장·도배 등 건설·건축 분야와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한해서는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는 지급된다. 수강 가능 과목은 건설·건축,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공무원·공인중개사·온라인 교육 및 순창군 자체 시행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교육 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최형구 순창군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훈련 지원을 통해 관내 구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반 마련을 돕고, 진출할 수 있는 취·창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ng@

남원시, 안전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 대응·교통 등 7대 분야

남원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불가안정 대책 ▲도로·교통 대책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위생·환경 대책 ▲공직기강 확립 등 크게 7대 분야에 걸쳐 중점 추진된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연휴 동안 역학조사반(16개)과 자가격리 통지반(7팀)이 편성되

고, 선별진료소도 계속 유지된다. 또 응급 의료기관(남원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지정·운영된다. 진단검사는 등 코로나19 관련은 남원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은 남원의료원 및 남원병원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당직약국에 대해서는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미용 및 남원사랑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필품, 서비스업 등 중점관리 3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도 주요 정체구간에 교통요원을 배치하는 등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며 사회적거리두기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설 맞이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처리와 청소년원 처리반 운영 등을 위해 특별상황반을 설치·운영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나선다. 특히 연휴기간 중 오는 31일부터 2월2일까지 3일에는 광한루원과 테마파크 등이 무료 개방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이번 설 명절에도 시민들께 귀성·역귀성 자제를 요청드린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

www.yhbeco.co.kr